

오륙도 칼럼



유정임

언제였더라. 현충일 특집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무명용사'들의 묘지에 쓰인 비문을 살펴라 다닌 일이 있었다. 묘지의 비석을 돌며 한 두줄씩 적혀있는 비문을 살펴보다가 나는 그만 한 묘비 앞에서 몽환한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고 말았다. 어머니의 생생한 통곡이 발길을 붙들었던 것이다.

"잊지 못할 내 아들이! 너의 꿈이 이 곳에 있다!"

비문은 아들에 대한 절절한 사랑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어머니의 가슴 시린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다. 국가에 바친 내 아들의 한스런 젊음을 타박하고 있었다. 그래서 비문은, 쓰리게 통곡하고 있었다.

용사들의 묘지는 항상 우리를 슬프게 한다. 누군가를 위해 뜨거운 정춘을 바쳐야했던 과거는 무심하게 사라졌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기도 하다.

그런 아픔이 잠들어 있는 곳. 숭고한 희생 앞에 경건함으로 마음이 모아지는 곳. 부산 남구 대연동의 UN기념공원은 세계 유일의 유엔군 기념공원은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몰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세계 속의 부산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역사의 살아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1959년 11월, UN과 대한민국간의 협정으로 유엔기념 묘지로 출발한 이곳에 얼마 전 경사스러운 날 보가 날아들었다.

남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가 간절히 염원하던 일이 많은 이들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현실로 다가온 것. UN이 부산 남구의 유엔평화문화특구 지정사업에 '유엔' 명칭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또 하나의 기쁨을 선물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정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유엔기념공원'을 유엔평화문화특구의 노련자위로 발전시키려는 남구 주민들의 절실했던 염원이 이룬 당연한 승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년 전 미국 뉴욕거리.

나는 UN본부 건물 앞에서 두 손을 번쩍 치켜 들고 사진을 찍었다. 기쁨과 흥분이 서린 이 사진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그것은 UN 세계연합본부의 실체가 갖는 무게에 대한 존중이기도 했으며 반기문 사무총장을 향한 한 국민으로서의 반가운 인사이기도 했고 UN에 대한 세계인으로서의 무한한 신뢰이기도 했다. UN이 주는 무게는 누구에게나 그렇지 않을까!

그런 UN이 다른 나라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UN명칭의 사용을 유엔기념공원을 위시한 남구 대연동 일대의 유엔평화문화특구 지정사업에 사용토록 한 것은 그만큼 이 곳이 세계인에게도 각별하고 특별하다는 애정의 증거일 것이다.

이제 이 곳은 남구의 랜드마크

뿐만 아니라 부산의 랜드마크로, 아니 그보다 더 넓게 세계의 랜드마크 자리매김할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돌이켜 생각하면 아픈 역사의 일부이지만, 세계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나눈 그 진정성의 가치는 어느 것에 비할 수 없는 아름다운 희생이기도 하다.

이제 그 숭고한 뜻을 살려 또 다른 평화의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킬 일만이 남구의 과제로 남은 것이다.

현충일 다투는 일령이는 바다 위를 지나는 국화꽃으로 마무리되었다. 바다로 바다로 흘러가던 국화는 바다 위에서 잠이 되었다가 이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국화는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시야를 벗어났지만, 바

다와 한 몸이 되어 떠나갔다. 그것은 아름다운 희생의 징표로 마음에 기억을 남겼다.

숭고한 희생이 역사로 묻혀 있는 거룩한 성역. UN기념공원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상처 역시 우리의 무심한 기억을 자주 돌아보게 한다.

이제 우리는 남구가 펼쳐갈 유엔 평화문화특구 관련 사업에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UN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당당한 행보에 부러운 격려를 보낸다.

세계가 달려와 하나로 이어졌던 거룩한 희생.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 그 막중한 임무를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는 당당한 남구 주민들에게 열정적인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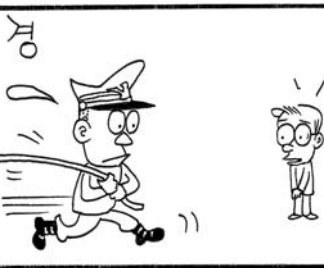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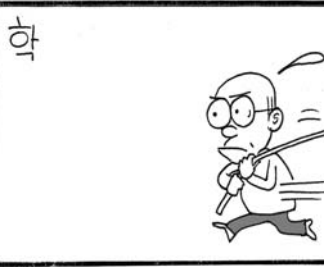
가장 가치로운 일은 대가 없이 누군가를 위한 일. 뉴욕에서 불어온 신뢰와 선택의 바람이 지금 부산 남구를 더 뜨겁게 달구고 있다.

부산영여방송국장
한국방송작가협 회원

신선대

<174>

채 규중



이영숙(문현3동)

비탄 벨트를 귀찮다고 불평을 한 승객들이나,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아예 감춰버린 택시나 양쪽 다 문제가 있었다.

뒷자리 안전띠를 안 메고 사고가 났을 때 받는 충격은 상상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 TV에서 실험한 것을 봤는데 자동차 안전띠를 메지 않은 뒷자리 마네킹이 앞자리 마네킹과 부딪치는 순간, 머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택시 뒷좌석의 안전벨트도 쉽게 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유남규(감만1동)



선욱의

1000자 지혜

74

눈치

<눈치>란 재미난 말이 있다. 주로 남의 마음의 기미를 알아챌 수 있는 재주를 말하는데 사회생활에서는 아주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눈치에 관한 속담도 많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공색한 일 없이 지낼 수 있다는 뜻으로 <눈치가 빠르면 께에 가도 조개젓을 얻어 먹는다>란 속담을 자주 사용한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고 경우가 밝은 사람, 또는 눈치가 빨라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사람을 보고 <눈치 빠르기는 도강집 강아지 같다> <눈치가 형사(刑事)다> <눈치 10단 코치 100단> <적이면 삼척> 등의 재미있는 속담이 있는가 하면, 눈치 없는 사람을 빈정대는 말로 <눈썰레 종지땀 잡아 먹음 사람> <눈이 때도 얻어먹지 못할 X> <형광등>이라고도 한다.

어쨌든 이 <눈치>가 언제나 말썽이다. 이것이 적당히 빨라야지, 너무 지나치게 빠르거나 그 옅다고 너무 늦거나 어두워도 욕을 먹는다.

어떤 단체라는 틀니바퀴를 돌리는데 눈치는 생산현상을 돕는 데 원활을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 <아침>으로 변할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현행법에 나오는 이야기

다. 월 지방의 현령은 그에게 아첨하는 사람을 좋아하여, 그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아랫사람들이 입을 모아 찬양하고, 현령도 그것을 은근히 즐겨워하였다.

하루는 말단 관리 한명이 현령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일부러 옆 사람에게 큰소리로 말하였다.

"대체로 뒷사람들은 아랫사람이 아첨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현령께서는 그러지 않으시단 말이야. 그분은 아첨하는 사람을 아주 경멸하시지."

이 말을 들은 현령은 곧 그를 불렀다.

"그게! 내 맘을 알아주는 이는 자네뿐이야. 자네는 참으로 훌륭한 공무원이야!" 그리고 그때부터 그를 특별히 잘 대해주었다. 지금은 봉건군주시대가 아니다. 아무리 뒷사람의 말이라도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 옳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아침이 되는 것이다.

무조건 예, 예! 와 아첨은 결국 사회와 단체를 와해시키고 서로의 마음을 속이면서 이어지는 비생산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다. 눈치껏 할말은 하면서 나쁜 것은 고쳐가면서 단체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바른길 아닐까?

변혁문화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현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관광서 등에 우체통 설치

요즘 거리에서 편지 한통이라도 보내려면 너무 힘들다. 빨간 우체통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일직거리만 이동하면 우체통이 있어 널빤지 되었는데 요즘은 길거리에 빨간색의 우체통을 찾기가 어렵고 아예 우체국을 찾아가는 것이 빠를 정도이다.

물론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의 영향으로 편지를 써서 부치는 비율이 훨씬 줄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편지 한 통 보내려 몇 km나 걸어가야 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고 귀찮다고 본다. 그나마 서울에 가 보면 수십 m 마다 우체통이 보이는데 지방의 경우 몇 백 m를 찾아도 잘 보이지 않는다.

또한 우표를 구입하기도 힘들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고장 가로등 수리

도서관 가로등 추가 설치할 건의 하신 황외숙씨의 의견에 답변 드립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선 건의지역 현장조사 결과 고장난 가로등 1등은 보수하였으며 서관길에 가로등은 적정간격으로 설치돼 있어 향후에 유지관리비(전기요금, 고장수리비 등)를 감안할 때 추가 설치가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구 도시관리과에서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주민 불편 사항 신속 처리와 고장 수리를 위해 고장신고전화(☎607-4674)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고장수리는 신고일로부터 2일내에 보수해 안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최덕렬(도시관리과)

■詩가 있는 풍경

어머니

반짝이는 백발은 빗바늘 세월에 갇혀진 주름 마다 자연으로 가득한데 어머니의 맑은 미소 행복으로 가슴에 저려만 온다.

병마에 빼앗긴 의연하고 당당하신 모습 통곡이라도 하고 싶지만

눈을 맞추고 손을 맞잡고 도닥이고 싶노라면 평화로움이 서글픔에 스며든다.

주어도주어도 모자란 사랑 아낌없이 다 주어 기억마저 바닷났지만



김미영

용화1동·시민

자율롭지 않은 몸에 날개를 달고 지나간 일들은 자물쇠로 잠겼으나 모정은 울타리 되어 우리를 감싸 안는다.



순례단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으며 경전철 유치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생활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 순례과정에서 안타까움과 분노의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것은 그동안 우리지역 주민들은 전국 수출입 물량의 80% 이상이 우리지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나 이에 비해 교통·환경·기타 복지시설은 한적한 시골보다 못한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수준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의 건강상태 역시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더라도 유난히 질병

환자의 분포가 높다는 것을 알았을 때 눈물이 흘렀다.

앞으로 6개월 우리 지역주민들은 더욱 더 힘을 합쳐 우리 지역에 경전철이 유치될 때까지 노력을 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지난 16일 동안의 힘든 여정을 함께한 전국도보순례단 7명이 항상 앞장서 나아갈 것이다.

김경래
(우암·감만·용당·문현4동 경전철 유치추진위원회 대변본부장)

■ 우암·감만·용당·문현4동 경전철유치를 위한 15박 16일의 전국도보순례를 마치며

경전철 유치위해 걷고 또 걸었다

우암, 감만, 용당, 문현4동으로 이어지는 우암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물동량을 운송하는 산업도로로서 대형차량 통행으로 만성적인 교통정체 현상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실제로 해마다 수십명의 인명사고와 소음, 분진 발생 등으로 인근 주거지역은 7만3천명이 거주하는 곳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 1월28일 주민들의 편의와 자녀는 아이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경전철을 유치하기 위한 경전철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게 됐다.

지난 5월10일에는 총 15,248명의 주민들에게 연명날인을 받아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 8곳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전달하며 경전

철 유치의 당위성을 알렸다.

위원회는 경전철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보고 7명으로 구성된 전국도보순례단을 결성, 지난 6월14일 부산을 출발해 걸어서 서울로 향했다.

당초 휴식일 3일을 포함해 20박 21일을 계획했지만 사안의 시급함과 경비 절감을 위해 휴식일도 없이 부산~양산~경주~영천~군위~의성~문경~충주~이천~성남~서울까지 하루 35~40km를 강행한 끝에 전체일정을 5일이나 앞당길 수 있었다.

숙식은 주민들이 제공한 쌀과 김치, 고추장, 된장 등과 간이텐트를 이용해 유원지와 공터 등에서 해결했다.

40대 후반에서 60대에 이르는 7명의 대표들은 체력적 한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7만 주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고분

을 이겨냈다.

대원들 중에는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김광일 전 구의원도 주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순례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출발 15일 만인 지난 6월28일 국회에서 김무성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경전철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김 대표는 긴 여정 동안 최선의 노고를 다한 전국도보순례단 대원7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위로 격려했으며 김정은 국회의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이에 전국도보순례단은 6월29일 새벽 5시 서울을 출발하여 15박 16일의 긴 여정을 모두 마치고 6개동 주민들의 열렬한 환호와 격려 속에 아쉬움과 피곤함을 뒤로한 채 모든 일정을 소화하며 일상

■ 나의 생각

이런 사기 조심하세요.



구희자

지난 6월28일 아침 9시30분경에 아침을 먹으려고 가스 불 위에 찌개를 데우고 있었는데 조금 데우다 보니 가스불이 나오지 않아서 욕상에 올라가 가스통을 흔들 어보니 가스통은 아직 무거웠다. 내려와서 다시 가스를 틀어보니 조금도 나오지 않았다.

언제 가스를 넣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가계부를 찾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45~50세 가량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가스를 갈아놓았으니 돈을 달라고 했다.

"가스 갈아 달라고 전화한 적 없는데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하니가 여기가 101호 왔냐고 묻는 것이었다. "맞긴 맞는 데요" 했더니 가스를 한 번 틀어보라고 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틀어보았더니 가스레인지에 불이 나오는

것이였다. 어디서 왔느냐고 했더니 ○○가스(내가 넣는 가스집)라고 했다. 내 생각에는 다른 곳에 배달 가다가 우리 집에 잘못 갔았나보다 생각하고 어차피 뭘 어졌으니까 우리도 갈아야 하는 데 갈아둔 가스를 다시 가져가라고 하느니 그냥 넣고 그 집은 새로 배달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얼마냐고 물었더니 3만4천원이라고 했다.

내가 4만원을 주었더니 "잔돈 가져올게요" 하고 나간사람이 한참 있어도 오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되어 욕상에 올라가보니 가스통은 아까 그 가스통이였다. 그제서야 내가 속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쓰는 가스 집에 전화해서 물어보았더니 가스 보낸 적 없다고 했다.

가스집 사장은 요즘에 그런 사기행위가 많이 있다고 했다. 그 사람이 가스 쓰는 것을 보고 가스통은 잠가두었다가 다시 열어놓고 가스를 갈았다고 한다.

내가 이렇게 알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이런 속임수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내가 바라는 세상은 서로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세상이다.

(주부·대연3동)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 李 福 熙 / 편집주간 河 仁 相

부산광역시 남구 남구청길 50(우 608-701)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필관 <비밀매우>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